

#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 2부 .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

로펌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특히 '사람중심'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는 지평에게, 진정성과 윤리성을 가진 진취적인 인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지평은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공정한 채용절차, 구성원의 다양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 성장을 위한 교육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01

## 지평의 구성원

### 지평의 소속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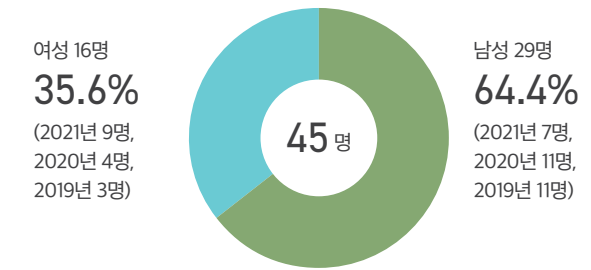
지평의 변호사 채용정책은 한마디로 '동업자 찾기'입니다. 지평은 소속변호사가 근로자임과 동시에 미래의 동업자가 될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지평 HR위원회는 최고의 동업자에 걸맞은 최선의 채용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실무수습 선발 및 신입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인적 구성의 다양성 기준을 고려 요소로 포함시켜 다양한 출신학교에서 실무수습 및 신입변호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혼인 여부,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장애 유무에 관한 차별 없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의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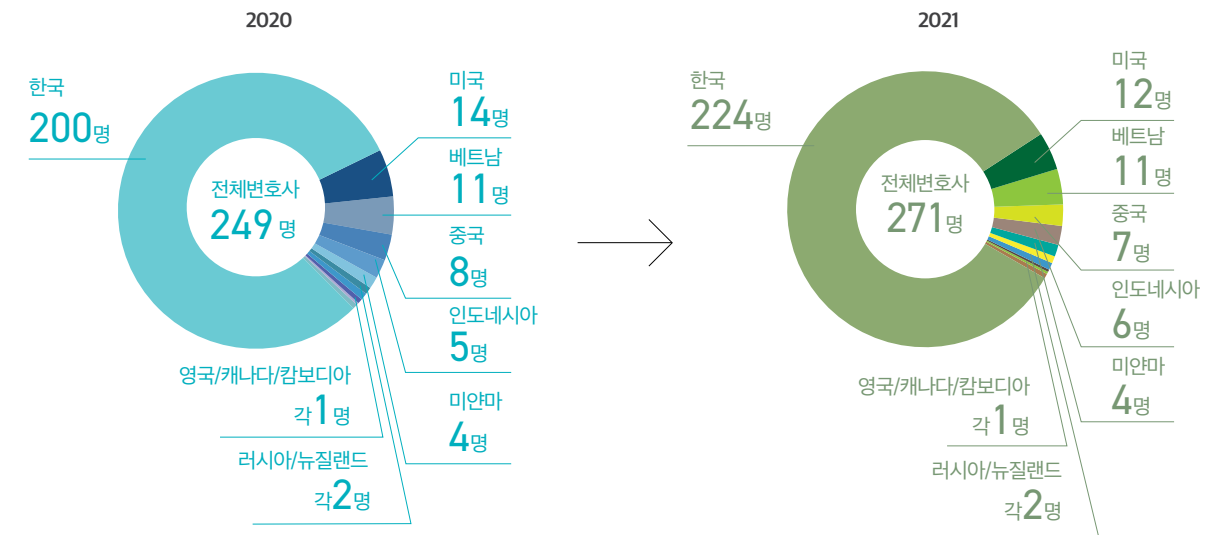
지평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이력서에 선발 과정에서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을 비롯한 채용과정에서 성별·연령·외모·병력 등 비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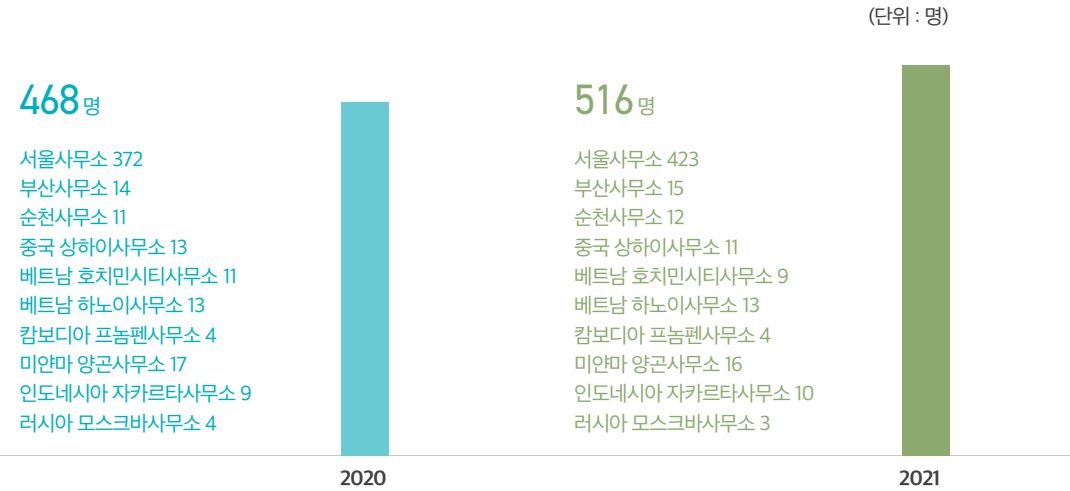
### 2019-2021년도 신입변호사 성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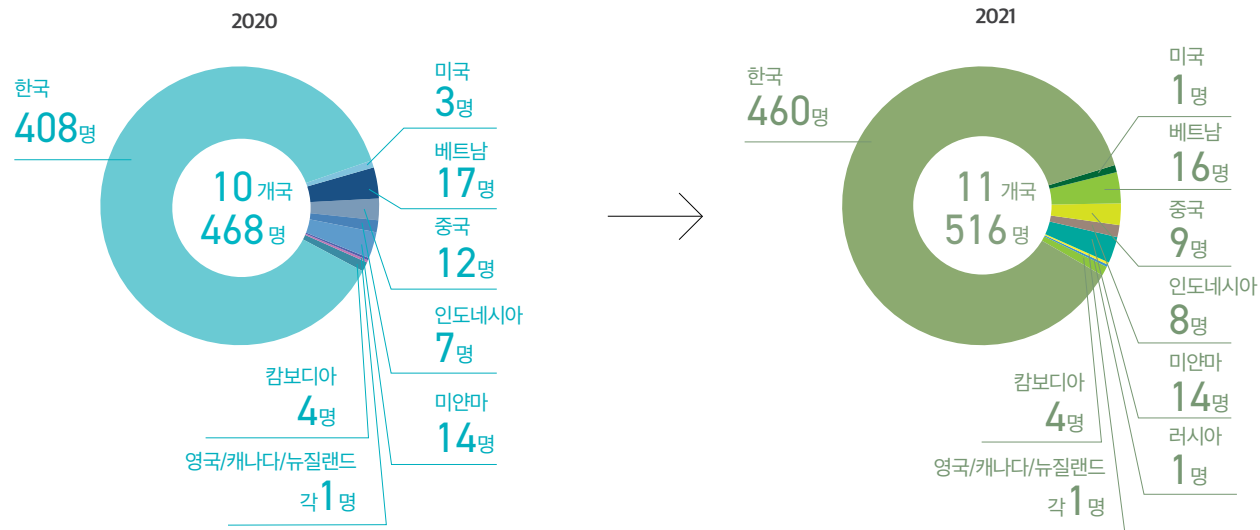
### 변호사 자격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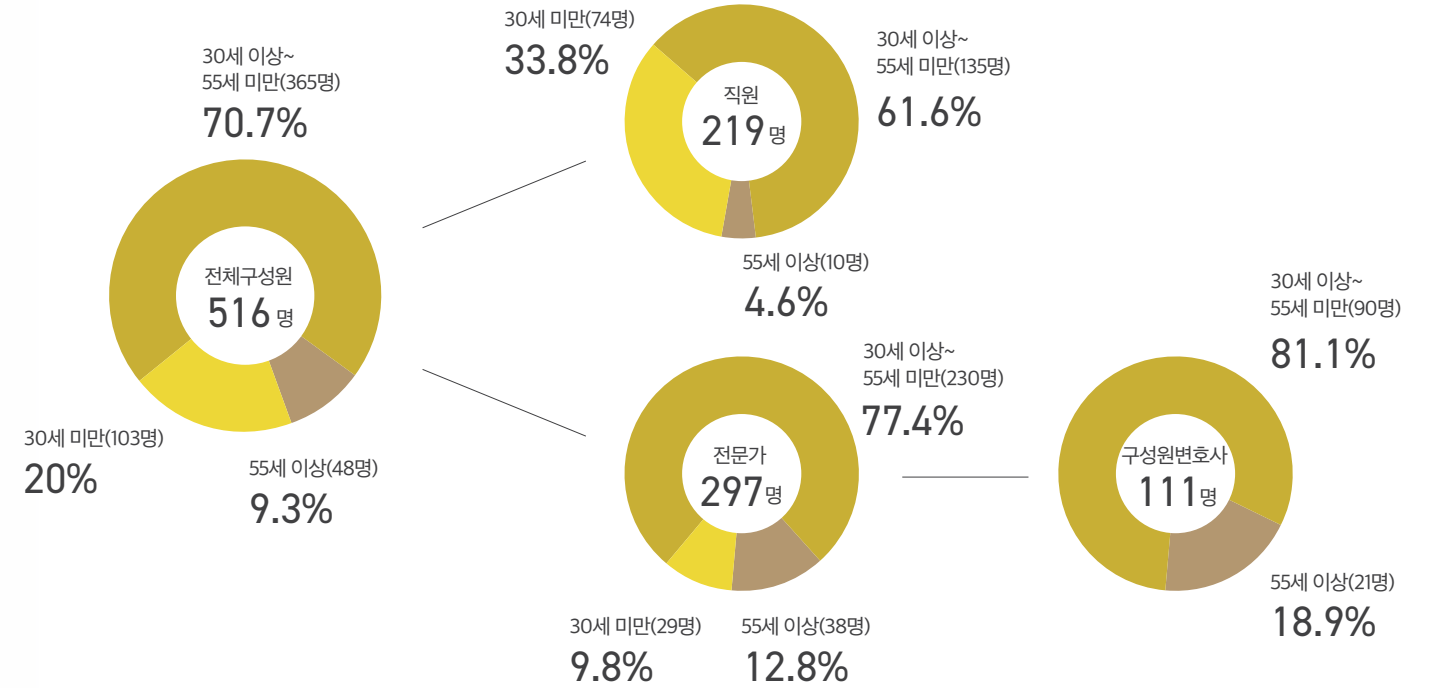
사무소별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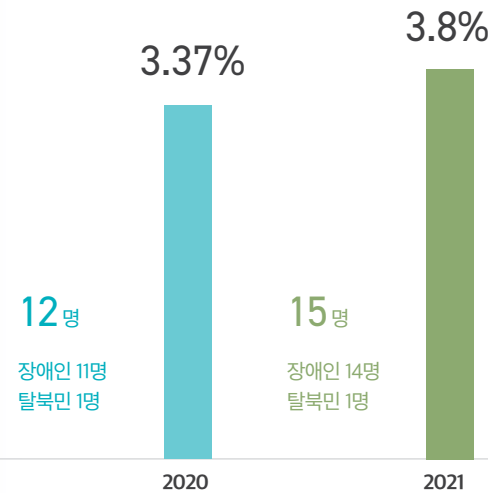
구성원의 국적



구성원의 연령별 구성



소수자 구성원



2020-2021년 입사 및 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입사(%)		퇴직(%)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전문가	전체	57명(21.2%)	57명(19.1%)	19명(7.1%)	32명(10.7%)
	한국변호사	50명(25%)	40명(17.8%)	13명(6.5%)	16명(7.1%)
직원	37명(18.5%)	37명(16.9%)	12명(6%)	14명(6.4%)	
합계	94명(20%)	94명(18.2%)	31명(6.6%)	46명(8.9%)	

# 02

## 구성원의 역량강화

### 2021년도 지평아카데미

지평은 지평아카데미를 통해 지평 내 전문가와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으나, 2021년에는 오프라인 참석인원은 제한하되 온라인 참석을 통해 참여 규모도 확대하고 더 많은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합계출산율 0.81%\*로 인구절벽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과도한 경쟁을 피하는 공존전략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인구학 강연은 듣는 이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 통계청(2022. 2. 23. 보도자료)

일자	강연주제	강연자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재승 변호사
2월	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신민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
3월	ESG동향과 새로운 시장, 기업의 변화와 과제	이준희 그룹장
4월	로펌 구성원의 주식 투자와 관련된 법적·윤리적 이슈 개관	이정훈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
6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	권창영 변호사
9월	미래를 기획하는 도구, 인구학	조영태 교수(서울대)
10월	메타버스의 시대	이시한 교수(성신여대)
11월	MZ세대와의 공존을 위한 몇 가지 화두	원숙연 교수(이화여대)

### 신입변호사 교육

지평은 교육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신입변호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입변호사 교육은 입사 후 2개월 간은 변호사 윤리, 비즈니스 에티켓, 소송, 자문외견 등 법률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매주 금요 세미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관한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좋은 변호사란
학생에서 변호사로   -비즈니스 에티켓, -법정 예절, -소송절차 개관
지평의 사회적가치경영 설명회
팀즈 및 아웃룩 활용법
리서치 방법론
민사소장 과제 및 강평
민사 의견서 과제 및 강평
실사보고서 과제 및 강평
민사답변서 과제 및 강평
보전처분 강의/보전처분신청서 과제 및 강평
자문 의견서 과제 및 강평
헌법소송 신청서 과제 및 강평
계약서 코멘트 과제 및 강평
형사 변론요지서 과제 및 강평
계약서 과제 부여 및 강평
민사 상고이유서 과제 및 강평
이사회, 주총 과제 및 강평

### 금요세미나

지평의 금요세미나는 교육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신입 변호사 대상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매주 금요일 15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교육프로그램은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뤄졌습니다.

날짜	내용
1주차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2주차	M&A 실무와 상법
3주차	대출계약과 담보
4주차	기업회계 개관
5주차	의견서 작성방법과 리서치 요령
6주차	도산법 개관
7주차	공정거래법 개관
8주차	근로기준법 개관
9주차	조세법 개관
10주차	수사절차, 형사재판절차
11주차	지적재산권법 개관
12주차	건설부동산 업무 개관
13주차	행정소송 쟁점과 사례
14주차	금융관계법, 자본시장법 개관
15주차	외국환거래법, 외국인 투자제도 개관

### 1인당 교육훈련시간 통계(서울사무소)

	전문가		직원		합계	
	총	1인당	총	1인당	총	1인당
2019년	2,397.2	13.6	642.0	4.6	3,039.2	9.6
2020년	3,467.8	16.5	735.5	4.5	4,203.3	11.3
2021년	3,862.3	13.0	1,116	5.1	4,978.3	9.6

### 신입변호사 교육훈련시간 통계

내용	1인당 교육시간	전체 교육시간
신입변호사 교육	123.2	1,637.5
금요세미나	24.6	302.8
총 시간	147.8	1,940.3

\* 강의, 강평에 소요된 시간+과제에 소요된 시간(각 과제별 실제 참석자 기준으로 산정)

## 한국환경공단 이야기



송경훈 변호사

2021년 한 해 동안 제가 장기연수를 한 한국환경공단(K-ECO)은 1980년 한국자원재생공사라는 이름으로 탄생했습니다. 현재는 3천여 명으로 구성된 환경부 산하 최대 준정부기관으로, 상하수도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부터 토양 정화, 지하수·대기질·소음관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충전소음 및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까지 우리 삶과 밀접한 환경 관련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준정부기관이라 순이익 비중이 낮긴 하지만 연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곳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1년부터 꾸준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ESG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환경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수를 마칠 무렵에는 노상주차장 상당부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전환에서도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 분야 법률업무를 하면서도 환경시설이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는지를 직접 볼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연수를 한 덕분에 서울(용산), 광명, 부천, 밀양, 통영 등 전국 각지의 현장을 돌아다니며 각종 환경시설 설치와 운영의 전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폐기물 선별의 현실적인 한계, 폐기물 소각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문제점, 토양 정화의 세세한 프로세스, 상하수도시설의 구체적인 작동방식, 시설 설치와 운영 과정의 실무적인 애로사항 등을 직접 눈과 귀에 담았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환경시설과 우리의 일상이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지하에 설치되는 최근 환경시설의 경우 지상에는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접 현장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법한 법률문제도 많다는 사실에 변호사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평창, 울릉도 등 몇몇 현장은 미처 가보지 못했는데, 연수는 마쳤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가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장기연수는 경험의 외연을 크게 확장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의뢰인의 관점에서 분쟁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평의 구성원들이 장기연수 제도를 뜻깊게 활용하여 스스로의 지속가능성과 지평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를 희망합니다.

### 정기적인 인사평가

지평은 소속변호사 및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를 1년에 2회,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대상자 중 장기연수, 휴직 중인 경우와 입사 3개월 미만 직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소속변호사(한국변호사) 중 평가 예외 대상 제외 93.2%가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86.8%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직원 평가 대상자 중 장기 육아휴직자와 입사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을 제외한 인원이 상반기에 89.6%, 하반기에 95.4% 평가를 받았습니다(서울사무소 기준, 미화 매니저/딜리버리 사원 제외 산정)

직원 인사평가는 2020년까지는 연 1회 실시하였으나, 공정한 평가와 승진 및 발전 기회 확대를 위하여 연 2회로 조정하였으며,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잘 정착된 한 해였습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소속변호사	상반기	90.9%	94.7%	93.2%
	하반기	91.2%	91.8%	86.8%
직원	상반기	95.6%	93.7%	89.6%
	하반기			95.4%

### 변호사 장기연수

지평은 소속변호사들이 회사의 전문분야와 국제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연수복귀	연수개시	구분	연수처
6명	7명	해외 연수	미국 UC Berkeley LL.M
			미국 Columbia LL.M
			미국 UCLA LL.M
			미국 NYU LL.M
			싱가포르 국립대 LL.M
			호주 멜번 대학교
		전문가 과정	연세대 법학전문박사과정

# 03

## 인권과 안전

### 소수자 차별금지 정책

지평은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탈북민 등 사회적 소수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명함이나 시니어 고객을 위한 큰글자 명함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팀별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식개선교육

지평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2021년 지평의 장애인 구성원 비율은 3.8%로 전년에 비해 0.43% 높아졌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1년 기업체장애인 상시근로자 수치인 1.48%의 2배를 넘고, 민간기업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인 3.1%도 넘는 수치입니다.

지평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무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꾸준히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부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지속적인 장애인고용정책을 추진할 뿐 아니라 공익위원회 내 장애인권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상담창구

지평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사내 고충 처리를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창구를 통해 징계규정, 징계절차 진행 과정, 사내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으며, 사내구성원 대상 심층 면담을 통해 사내 문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징계 사례	-	1건

###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2021년 총 14건의 고충의견이 익명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고충은 100% 고충위원회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였으며, 근로조건 관련 항목은 직장 내 근로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이었습니다.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회사생활 편의사항 개선 관련	1	4
직장 내 근로조건 관련	3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1	1
기타	-	6
총계	5	14

### 업무상 상병 및 처리 사례

지평은 산업안전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무는 없으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업무상 상병과 공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 사무직 고유의 안전환경과 보건·정신건강을 위한 조치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세우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산재	1	-	-
공상	2	-	-
총계	3	-	-

### 인권 관련 교육

지평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등 인권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시간	참석인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414시간	414명
성희롱 예방교육	432시간	432명
개인정보보호 교육	415시간	415명

# 04

## 노사간 협력

### 예비구성원회의(전문가)

지평은 소속변호사를 근로자임과 동시에 미래의 동업자가 될 파트너라는 의미에서 예비구성원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예비구성원들은 자체적으로 연차별 위원, FLC(외국변호사) 위원, 여성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조직하고 경영위원회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예비구성원의 근로조건, 회사의 경영 방향, 업무의 질 향상, 기타 예비구성원의 건의사항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평 예비구성원회의는 2021년에 예비구성원의 일과 삶 균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예비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된 의견을 회사 차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지평의 본사 사옥 이전 및 건물 인테리어 방향과 관련하여 예비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비구성원회의는 급여인상 등 예비구성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영위원회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비구성원회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지평은 경영위원회와 예비구성원회의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 환경

지평은 지평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사단법인 두루에 의뢰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 환경'에 대한 평가 및 권고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 환경에 대한 평가 및 권고안]\*

지평은 쾌적한 근무환경(환기와 채광) 등 일부 영역에서 권리보장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해당 권리의 보장 및 향상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권고함.

\* 지평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30p.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이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22년 2월로 예정된 사무소 이전을 앞두고 공간 조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구성원변호사, 소속변호사, 직원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가정 양립, 근무시간 단축, 관련 현황, 회사의 조치

항목	구분	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실태 (2021년에 시작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집계)	전문가	출산휴가만 사용	1건	-	2건
		육아휴직만 사용	3건	1건	-
		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2건	5건	2건
		총계	6건	6건	4건
	직원	출산휴가만 사용	-	-	-
		육아휴직만 사용	-	-	-
		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	6건	4건
	총계	-	6건	4건	
최근 5년간 육아휴직 기간(출산휴가 포함)	전문가	평균 사용 기간	5개월	5.5개월	5.7개월
	직원		14개월	14.5개월	15.6개월
2021년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 실적		배우자 출산휴가	4명	7명	7명
		육아휴직	2명(평균 3.5개월)	1명(11개월)	1명(11개월)

(단위 :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구성원 수	남성	1	1	2	2	7
	여성	17	10	6	8	11

###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단위 :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문가	14	8	9	8	15
직원	-	11	10	8	7

### 법무법인(유한) 지평 사무실 이전 프로젝트 설문

기간 : 2021년 8월 26일 ~ 30일(5일간)  
 대상 및 방법 : 서울사무소 구성원 전체, Online Survey Link를 활용한 설문  
 참여율

	구분	참여율
전문가	구성원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45.61%
	소속변호사	62.99%
	직원	65.32%

지평은 개인 및 공동 업무공간에 대한 의견, 복리후생시설의 선호도, 현 사무공간의 장 단점 및 미래 사무공간에 기대하는 점 등 지평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미래공간을 기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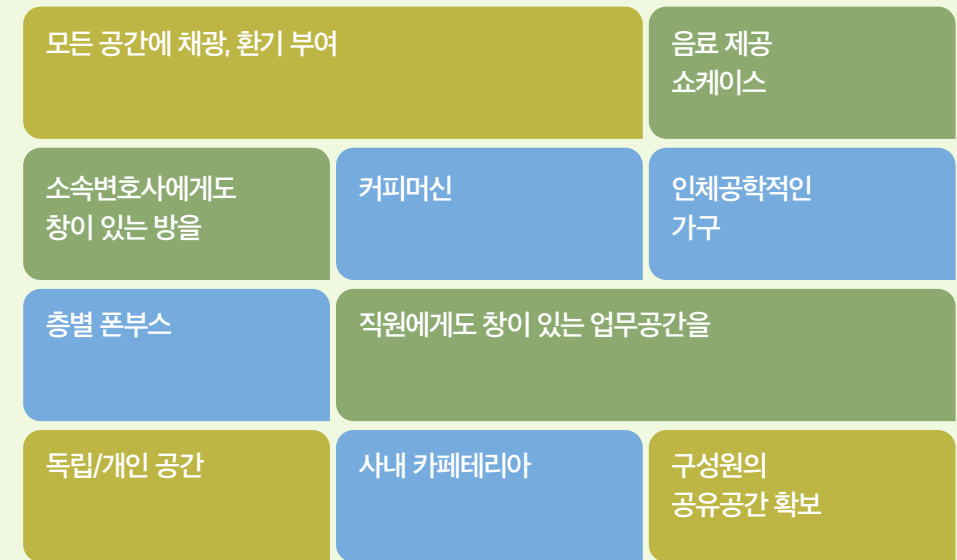
지평의 새로운 공간은 '업무집중 환경'과 '소통·교류 환경'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개별 공간 확보에 힘쓰는 한편 협업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카페, 라운지, 간이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 공간을 각 층마다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구성원변호사, 소속변호사 및 직원 등 내부구성원 모두가 환기, 채광, 공간 면적에서 소외되지 않고 쾌적한 공간을 골고루 공유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공간 구조와 배치에 힘썼으며, 이를 통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오피스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단계별로 공간이 기획되는 시점마다 각 그룹별 온라인설명회를 통해 공간 기획 진행상황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질의응답과 추가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각 업무조직별 특성에 부합하고, 모든 구성원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지평 구성원 주요 개선 요구사항

구성원변호사	소속변호사	직원
사내 카페테리아	사내 카페테리아	사내 카페테리아
방음시설	방음시설	인체공학적인 가구
전산기기연결용이성	인체공학적인 가구	방음시설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외부채광(밝기 정도)
개인실	개인실	수납공간/책장 수



칸틴(Canteen) 사내 카페테리아, 오픈 휴게공간에 대한 구성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각 층에 테마별 칸틴과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구성원의 소통과 협업 증진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원 공간 로펌에서는 직원 공간을 중앙에 배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직원이나 소속변호사 일부의 경우 채광이나 환기 측면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지평은 코로나19와 같은 미증유의 상황을 통해 구성원의 안전 보건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인권영향평가의 권고안도 받아들여 공간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제한적인 창가 공간을 직원 및 소속변호사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지평은 앞으로도 지평의 비전 중 하나인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